

보도 일시	2022. 3. 16.(수) 14:30	배포 일시	2022. 3. 16.(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책임자	과장 권수진 (044-203-3031)
		담당자	사무관 채수일 (044-203-2971)

##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판뉴딜’ -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주)디스트릭트홀딩스 등 4개 사례 선정 -

- 한류 실감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 (주)디스트릭트홀딩스
- 휴대전화 속 운전면허증,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다 - (주)엘지씨엔에스
- 이륜차 안전 여행, 인공지능(AI) 주행 도우미 - (주)별따러가자
- 반려동물 건강관리 휴대전화로 ‘똑딱’ - 에이아이포펫(AIFORPET)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주)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 (주)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16일(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개 기업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마련했다. 이듬해 7월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이 완성됐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주)디스트릭트홀딩스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자 수천 송이 거대한 동백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옆에는 백로가 성큼성큼 바닷가를 걷고 있다. 갓 추위가 가신 3월인데도 사방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거대한 폭포에서는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진다. 꽃비와 함께 풍기는 향긋한 내음은 아주 사실적이다. 하룻밤의 ‘사파리’, 자연의 공포와 경이를 보여주는 ‘천둥’, 우주에 서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동굴’ 등 공간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몰입형 매체예술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다.

(주)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다. ’21년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약 120만 명, 매출 약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8종\*)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 금상을 수상했다.

\* ‘광화풍류’, ‘광화원’, ‘광화인’, ‘광화전차’, ‘광화수’, ‘광화담’, ‘광화경’, ‘광화벽화’

심사위원들은 “실감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인 상품으로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로 판단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엘지씨엔에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 그때 꺼내 쓰면 된다.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 생활을 현실화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 가능(우리은행 사용 가능, 다른 은행은 확대 추진)

‘디지털뉴딜’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주)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 있게’라는 목표 아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라고 평가했다.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주)별따러가자

(주)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된다.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2021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주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초기관광벤처 기업(사업화 자금·전문 상담·교육 등 지원)으로 선정된 (주)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에이아이포켓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앱)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티티케어’ 서비스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만큼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희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라며, “이러한 변화와 성과가 모여 ‘한국판뉴딜’이 완성되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취합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붙임 '22년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대상자 소개(요약)

**(주)디스트릭트홀딩스**

회 사 명	(주)디스트릭트홀딩스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실감콘텐츠산업 육성-대한 민국 실감콘텐츠 위상 제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다!**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한 K-실감콘텐츠**

(주)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을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디지털뉴딜) 사업에 선정돼 202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을 개관,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국민에게 실감미디어를 통해 특정 공간에 가 있는 듯 가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1.12월 기준으로 관람객 약 120만 명, 매출 약 150억 원을 기록했다.

아르떼뮤지엄은 누구나 편하게 다가가 호기심을 갖고 가상의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곳이다. 아르떼뮤지엄의 각 전시 작품은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감각적인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했고, 작품 주제에 걸맞은 사운드와 조향까지 연출해 청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몰입 경험을 선사한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아르떼뮤지엄 콘셉트 전시관 개관**

(주)디스트릭트홀딩스의 실감콘텐츠 제작 역량에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형 파도가 스크린을 뚫고 실제 덮치는 듯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압도적인 미디어아트 'Wave'는 SNS 누적 1억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를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매체에도 소개됐다

또한 '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유네스코 주최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한국: 입체적 상상(Cubically Imagined)'에 참여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실감콘텐츠의 위상을 높였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102.5m의 대형 디지털 폭포인 'Waterfall-NYC'를 비롯해 홍콩 란과이펍 'Whale'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K-실감콘텐츠를 알리고 있다. 그 결과, 기술력과 창의력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 최고점으로 금상을, 제57회 무역의 날에는 '백만불 수출탑(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디스트릭트홀딩스는 K-실감콘텐츠 확산을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아르떼뮤지엄 콘셉트 전시관을 개관, 대한민국이 만든 실감콘텐츠가 전 세계 모든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LG CNS

회 사 명	LG CNS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지능형정부-모바일 신분증



###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 있게'... 모바일 신분증 시대

#### '지갑 없는 일상생활'. 디지털 비대면 경제 활성화

LG CNS가 컨소시엄 주관사로 구축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속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디지털뉴딜 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오프라인(대면)과 온라인(비대면) 신원 확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G CNS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 있게'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내 신원정보는 내 휴대전화기에 안전하게 보관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는 등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다.

특히 신원 확인 요청 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하는 '자기주권형' 방식으로 신원인증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다양한 공공·금융·민간서비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은행, 편의점 CU·GS25, 렌터카 팀오투, 차량공유 그린카, 킥보드 확고, 무인 자판기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하다.

#### '지능형정부' 앞당기는 모바일 신분증

지난 1월 27일 시범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만 갖고 가면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인 휴대전화는 안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시범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가능하다.

LG CNS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시범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 '지갑 없는 사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신원인증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 있는'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별따러가자

회 사 명	(주)별따러가자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AI 기반 관제 솔루션-안전한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 AI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지킨다

#### 이륜차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

(주)별따러가자는 마이크로 센서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소형모빌리티 관제 솔루션 개발 전문 관광벤처기업으로 ‘라이더로그’를 개발했다. ‘라이더로그’는 전력소비량이 적은 소형 모션 센서를 이동수단에 부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큰 건설 장비부터 작은 킥보드까지, 크기에 상관없이 정밀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이륜차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주)별따러가자는 이륜차의 플랫폼 개발 한계를 극복,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관제 솔루션을 탄생시켰다.

‘라이더로그’는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별 운전습관과 개선점을 도출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응급 구조 알림 E-Call(자동구난 신고)이 작동되도록 했다. 특히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블랙박스는 운전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라이더로그는 이동 경로와 사고 상황을 3D로 재현해냄으로써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과 대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2021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초기관광벤처기업에 선정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 (사업화 자금·컨설팅·교육 등 지원)으로 선정된 (주)별따러가자는 우선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110여대)에 시범 부착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여행객의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이 늘고, 특히 2017년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1,092건으로 하루 평균 1건을 기록할 정도로 상해·사망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로그’ 서비스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별따러가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우수기업’, 방송통신위원회의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최우수상’, 신한스퀘어브릿지 Hero IR Day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 유레카파크 포스코 단체관에 참가해 해외에 기술을 알렸다.

## 에이아이포펫

회 사 명	에이아이포펫(AIFORPET)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반려동물 아픈 곳 찾는다

####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서비스 ‘티티케어’

‘에이아이포펫(AIFORPET)’은 2020년 설립된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4차산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서비스 ‘티티케어’를 개발했다.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 사진을 찍으면 AI가 해당 부위의 질병 증상 유무를 알려 준다. 게다가 반려동물의 종·나이·몸무게·질병 기록 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강관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토털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휴대전화 사진 촬영만으로 동물의 눈·피부 질병 증상을 분석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티티케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로 허가받았다. 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만으로 동물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첫 사례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통해 AI 성능 개선

‘티티케어’ 서비스의 기반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에 ‘에이아이포펫’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외에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기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 유무 판별의 정확도를 92%에서 94%로, 각막흔탁 증상 판별의 정확도를 95%에서 99%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반려묘의 눈 증상도 데이터 부족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는데, 구축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막부골편·각막궤양 등 반려묘 안구 증상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에이아이포펫’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서비스 개발에 힘쓰는 한편 세계 펫테크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AI-HUB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에이아이포펫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도 다졌다. 세계 반려동물과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